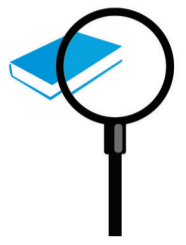


# 자연과 생명의 신비... 숲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나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 세계숲

다이애나 베리스퍼드 - 크로거 지음, 노승영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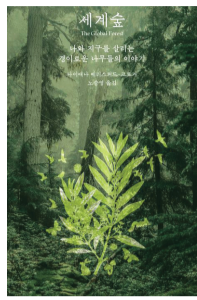
다음은 어떤 나무일까.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나무로 '성스러운 식물'이라 불린다. 아기 예수 탄생과 잘 어울리며 초록색과 붉은색이 조화를 이룬다. 진한 색상은 은밀한 힘을 드러내는데 황토색 잎은 시각적 보호색이다.

바로 호랑기시나무다. 켈트인들에게 초록색, 붉은색은 삶의 양면을 상징한다. 이 두 색은 고대 이후 신비로운 색으로 여겨졌다.

다음은 어떤 지역일까. 북아메리카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토착민의 발명품이었다. 토착종 나무로 참나무와 히커리, 호두나무다. 또한 이곳은 "나무를 서식처와 조합하여 만든 지붕 덮인 사냥터"라는 의미로 통용됐다.

답은 사바나다. 엄청난 양의 견과가 생산되는 지역이다. 식량, 물, 생명 자체의 지속 가능성을 견인하는 지대이기도 하다.

아일랜드 출신의 세계적인 식물학자 다이애나 베



리스퍼드-크로거는 나무 전문가다. 그는 1960년대부터 기후 위기를 인식하고 환경 운동에 앞장서왔다. 그의 업적 가운데 하나는 '어머니 나무'의 중요성에 관한 발견이다. "나무가 화학적 언어를 통해 양자 세계에서 소통하는 살아 있는 의학 도서관"이

라는 것을 입증했다.

이번에 그가 펴낸 '세계숲'은 숲과 나무에 관한 생태적 지혜를 담은 보고다. 과학과 지식, 인문적 사유, 신화적 상상력이 어우러져 있다. 특히 시적인 언어로 기술돼 있어 장엄하면서도 아기자기한 느낌을 환기한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숲을 복원해 '세계숲'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세계의 중심일 뿐 아니라 세상을 지지하는 신화적 나무를 의미하는 '세계수'(世界樹)에 비견된다. 숲에는 '어머니 나무'가 있는 것과 같이 지구에는 세계숲이 있어 다양한 종의 생명을 품는다는 논리다.

"나와 지구를 살리는 경이로운 나무들의 이야기"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은 나무, 숲을 매개로 종횡무진 자연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저자에 따르면 딱총나무와 산사나무는 오래전부터 마법의 힘이 있다. 전자는 이집트 전설기에 많이 쓰였으며 지금까지도 사랑받는다. 고대 이집트는 귀한 화장품으로 활용했다. 피부 재생과 회복 효과 때문인데 세네카

족은 말린 딱총나무 꽃을 우려낸 물로 아기를 씻겼다. "모세혈관을 보호하는 생화학물질이 들어 있어서" 신생아 피부의 혈관을 확장했다.

장미과에 속하는 산사나무는 다섯 개 씨를 품고 있다. 서리가 내린 후 열매는 단 성질을 띤다. 토착민들은 씨를 말려 빵아 커피로 만들기도 했다. 다른 커피와 마찬가지로 카페인 함량이 높다. 저자는 "산사나무는 모든 나비 개체군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주(移住)의 시련을 이겨낼 건강과 능력을 키워"준다고 언급한다.

책에는 다양한 숲과 나무, 특히 연결성이라는 사슬로



이루어진 세계가 기술돼 있다. 그 가운데 다양성을 증폭하는 법칙 하나가 '어림셈'이다. 나무는 종마다 대략 40종의 곤충을 먹어 살린다는 것으로, 곤충은 특정 수종의 성장과 연동돼 있다.

균류 또한 나무 뼈대에 거주 공간을 마련하는데 이는 인간의 어머니에서 딸에게 이어지는 DNA 조각과 유사하다. 곰보버섯은 아메리카느릅나무에 보금자리를, 땀구알버섯은 사과나무를 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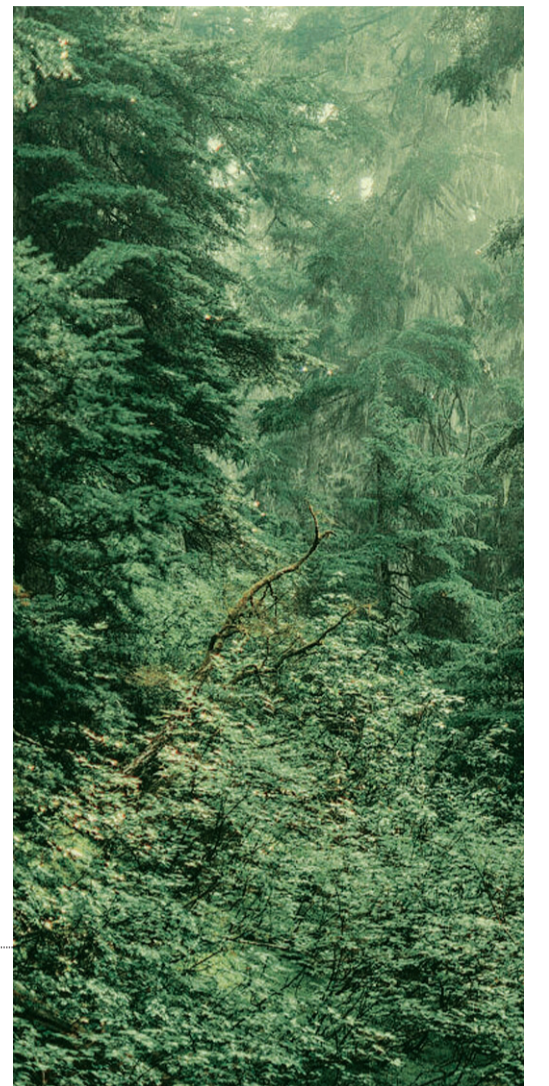
숲의 나무가 산출하는 수액은 달콤한 게 특징이다. 다람쥐가 껍질을 벗기면 부름겨에서 용액이 배어나온다. 다람쥐가 먹고 나면 겨울새가 당 산출물을 마시고 나비, 개미 차례로 흡수한다. 부름겨가 손상되면 나무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되고 먹이 순환은 스스로 보충된다. 이 과정에서 짐승은 씨앗이 벌어지게끔 일조를 한다.

숲의 시선과 나무의 언어로 기술된 책은 경이와 신비를 선사한다. 나무의 생리와 지질학, 화학, 식품영양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결부돼 있다.

한편 이정모 전 국립과천과학관장은 "과학적 발견과 신화적 상상력이 어우러진 독창적 스토리텔링이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다"고 평한다.

<아름·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호랑기시나무 ▶숲의 붉은색과 초록색은 신비로운 생명을 상징한다.

## 내가 우는 줄도 모르고 밤새 물들었다

유진수 지음

유진수 시인이 두 번째 시집 '내가 우는 줄도 모르고 밤새 물들었다'(문학들)를 펴냈다.

시인은 지나친 관념이나 현란의 수사기 아닌 발을 딛고 선 삶의 인저리를 섬세한 눈으로 바라본다. 다정하면서도 곧은 목소리가 뱀 시들의 울림은 간단치 않다.

유 시인은 "지난 2022년에 이어 펴낸 이번 작품집은 모두 57편의 작품이 수록돼 있다"며 "삶 속에서 환기하는 정서와 의미, 이미지 등을 담담하게 풀어냈다"고 전했다.

'세월을 살으면 이런 맛일까/ 질긴 양지 사태 곱고 고아/ 말라 비틀어진 중년의 생채기/ 초여름 가랑비 내리듯/ 담백하게 달랠 수 있을까//IMF에 등 떠밀린 객지살이 / 미국발 금융 위기로 쫓겨나고/ 코로나 팬데믹 섰다운/ 금살과 황액에 식어버린 마음/ 토렴하듯 데울 수 있을까// 밥알 쪼개 입에 넣어 주던/ 어머니의 강이 약속처럼 흐르고/ 뒤를 품어 다독이던/ 아버지의 평야가 물결치는/ 곱당 한 그릇//(후략)

위 시 '나주곶방'은 곱당 한 그릇에 담긴 지나온 세월의 흔적이 담겨 있다. 시대적 상황과 맞물린 개인과 공동체의 일상사를 '곱당'에 은유해 풀어냈다. 기저에는 무한한 어머니의 사랑과 평야로 상징되는 아버지의 삶이 투영돼 있다. 곱당 한 그릇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녹록지 않은 세월과 그 세월을 견뎌낸 이들의 송고한 삶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백수인 시인은 "유진수 시인의 작품에서처럼 비유와 융합의 언어적 장치는 그 자체로 새로운 시적 정서를 만들어낸다"고 평한다.

한편 광주 출신의 유 시인은 2021년 '세종문학' 시 부문 신인상으로 등단했으며 시집 '바로 가는 이야기는 없다네'를 발간했다. 현재 독서저널 '책읽는광주' 대표이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문학들·1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부자들의 서재

리치파카(강연주) 지음

소위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신들의 성공 이야기를 세상에 나누고 싶어 한다.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자신들만의 공식과 원칙을 강연이나 세미나, 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한다.

성공을 위해 그들이 남긴 지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책이다. 12만 팔로워를 거느린 리치 메이커 리치파카(본명 강연주)가 펴낸 '부자들의 서재'는 그들이 쓴 책 중 자신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 30권을 엄선해 담은 책이다.

가난 속에서 자라나 힘겨운 청년기를 보내던 저자는 어느 날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부자들이 쓴 책을 닦치는대로 읽기 시작했다. 매년 100권의 자기계발서와 경제경영서를 독파하면서 삶이 바뀌기 시작했고 그 결과 평범한 청년에서 억대 자산가로 거듭났다.

책은 단순히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부자들의 철학, 전략, 행동 방식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PART1 '목표의 힘'에서는 '스타트 워드 와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원생', '10배의 법칙'을 소개한다. PART2 '부의 힘'에서는 '부자의 언어', '이웃집 백만장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등 돈에 대한 책을 다룬다.

PART3 '생각의 힘'에서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백만장자 시크릿' 등을 다루고, PART4 '습관의 힘'에서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미라클모닝' 등을 소개한다. PART5 '실행의 힘'에서는 '신경 끄기의 기술', '시작의 기술', '5초의 법칙' 등을 통해 독자들의 실행력을 극대화해 원하는 변화를 이루도록 돕는다.

<오아시스·2만2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 폴란드인

J.M. 쿿시 지음, 양은철 옮김

변칙을 통해 아름다움을 만드는 '쇼팽'에게서는 자유분방한 리듬이 돋보인다. 그의 작품을 규칙적 패턴을 지향했던 '바흐' 시작으로 바라본다면 어떨까. 예측할 수 없는 쇼팽의 선율은 낯선 미적 발견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노벨문학상, 부커상을 석권한 J.M. 쿿시가 펴낸 소설 '폴란드인' 속 주인공 또한 쇼팽 음악을 바흐 풍으로 해석한다. 비단 예술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에 대해. 그는 바르셀로나 음악 서클에서 활동 중인 여인 베아트리체와 자신의 차이를 가늠하지만 외려 흡모하는 마음을 키워 간다.

저자는 원제(The Pole-폴란드인)가 상징하는 것처럼 쇼팽과 그의 연인 샹드가 도피여행을 떠났던 마요르카에 주목한다. 그곳에서 두 주인공은 실제 쇼팽이 그랬던 것처럼 관계의 전환점을 갖는다.

아울러 익숙한 이름 베아트리체는 단테의 소설 '신곡' 등에 나오는 단테와 베아트리체 이야기를 원형으로 가져왔다.

이들 서사는 남성 중심으로 풀어냈지만, 작품은 여성 뮤즈의 관점에서 불가사의한 로맨스의 본질을 이야기한다.

"여자가 먼저 그를 곤란하게 만들고, 이어서 곧 남자가 그렇게 한다."

책은 아름답고도 미묘한 첫 문장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서두에 따르면 이들이 빠진 사랑의 양태는 처음에는 '곤란함'이다. 멀고 서로 달랐던 두 사람이 마주하며 어려움을 마주하지만, 사랑은 그 간극을 매워 준다.

로스앤젤레스 리부 오브 북스에서 제스민 리우는 "이 책은 사랑이 육망의 대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묘사한다"고 평한다.

<말하는 나무·1만7800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탁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